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및 농업정보통신망 이용

Farmer Information Training Plan and Usage of AFFIS

1. 머리말

농업정보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정보화 기반이 확충되고 양질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막상 농업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활용할 줄 모른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인들의 컴퓨터를 통한 정보 활용률은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777명 중 약 70%가 간행물이나 방송매체에 의존해 농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컴퓨터통신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농업인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효과적인 농업정보 수집수단으로 컴퓨터통신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PC 보급(보급율:18.7%, '97년 기준 잠정치)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정보화 교육의 수요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2. 농업인 정보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농림부를 비롯해 농협, 지도소, 특성화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93년부터 매년 2~3천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러기관에서 추진해온 교육내용은 대부분 PC 조작요령 등 기초내용에 그쳤으며, 기초과정 이후의 심화과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 대

한 사후관리도 부족하여 교육 이수 후에도 실제 농업경영에 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3. 농업인 정보화 교육 계획

농림부에서는 정보활용 능력을 가진 전문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2004년까지 12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계획을 '97년말 확정,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과정을 다양화하고, 일정한 교육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집교육과 병행하여 직접 농업인을 찾아가 가르쳐 주는 현장방문 교육과, 사후 재교육도 계속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달리하여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다. 윈도 95,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의 기본 조작이나 운영에 관한 기초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농업정보화에 관한 전문교육은 컴퓨터 기본조작 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에서는 교육대상 농업인이나 교육내용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전문화-컴퓨터를 통해 어떻게 농업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농업정보를 농업생산이나 농업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교육 9천명,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전문교육 4천명 등 총 1만3천명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시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재개발이다. 농림부에서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공동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교재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비용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보화의 필요성에서부터 윈도우 95, 워드프로세서, PC 통신, 인터넷 등 농업정보화에 수반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재만 가지고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업인의 특성상 자발적인 교육참여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 앞으로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즉 농촌 인근지역 대학의 컴퓨터 동아리들을 연결하여 해당지역 농업인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달려가 가르쳐주는 정보 119 활동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이 안방에 앉아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98년 2개 지역의 대학(경남 경상대, 강원 강원대)에서 시범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와같은 현지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교육이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전문교육과 서로 연계함으로써 농업 정보화교육을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 교육으로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보화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여 나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리고 농업정보 활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기반 구축과 함께 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높여나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농림부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2004년까지의 12만명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정보 119 활동이 농촌지역 단위로 활성화 된다면 정보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도농간의

지역격차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컴퓨터통신, 언제 어디서든 정보 검색 가능

요즘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농림업에서도 이제는 농사짓는 방법을 아는 것(노하우 Know-how)보다 숨어있는 정보를 잘 찾아내는 "노웨어(know-where)"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농업정보검색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 획득 방법보다 훨씬 유리하다.

즉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정보의 농림수산자원 사업이나 정책자료, 가격정보, 기술정보나 각종 통계 정보 따위를 어렵지 않게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끼리 컴퓨터를 이용해 농업기술이나 작목에 관한 영농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모뎀, 전화회선, 그리고 통신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 통신'이란 전화기 대신 컴퓨터로 전화회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만하기 위해서는 전화국에서 전화가입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하이텔 단말기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이텔 단말기에는 컴퓨터 통신에 필요한 장비인 모뎀도 붙어 있어 단말기에 전화선만 연결하면 곧바로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정보는 무료로 이용 가능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천리안이나 하이텔, 아피스(AFFIS : 농림수 산정보) 등 해당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망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회원가입비를 10,000원 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이 정한 개개인의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서비스이용료는 매월 일정요금을 내는 정액제와 사용한 시간에 따라 내는 종량제가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정보화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농림수산 전문 정보망 아피스(AFFIS)는 별도의 회원가입비와 서비스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365일 이용할 수 있다.

단, 전화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PC통신 전용 전화번호인 01410(한국통신의 하이넷-P접속번호)과 01420(데이콤의 DNS접속번호)으로 연결하면 지방에서도 시내전화 요금으로 연결되며, 30%의 할인 혜택이 있고, 심야 할인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는 추가로 50%를 더 할인 받을 수 있다.

6. AFFIS에서 제공하는 정보

PC통신으로 접속이 되면 메뉴를 찾아 가거나 go affis 해서 농림수산정보망(AFFIS)에 연결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때는 직접 농림수산정보센터 홈페이지(www.affis.or.kr)에 접속하거나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나 농림한마당(www.agr.or.kr) 등 농림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

주요정보를 소개하면

기관/단체 코너에서는 농림부·산림청 등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발표 자료와 주요 제도 해설, 민원처리 사례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정책/법령 코너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나 행정규제완화 그외 농림분야의 법령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유통 코너에서는 농수축산물 전국평균가격, 전국 주요 도매법인에서 제공하는 청과물 경락

가격, 수산물/임산물 경락가격, 최근 5개년도의 가락시장 청과물가격동향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농산물 출하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외에 농업관측정보, 농산물/전통식품표준규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통계 코너에서는 농업총조사의 결과와 농업기본통계, 경지면적, 작물재배면적, 가축통계 등 농업분야와 산림면적, 임산물생산량 등 임업분야, 어업생산량 등 수산통계자료가 제공된다.

뉴스/잡지 코너에서는 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 원예산업신문 등 전문지, 새농민, 농경과 원예, 상업농경영, 과학원예 등 전문잡지의 뉴스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자재/기술 코너에서는 농기계·종자·축산기자재 정보와 식품기술 정보·특허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농기계 가격, 서울종묘와 흥농종묘에서 제공하는 재배기술정보, 병충해·생리장해 정보 등이 있다. 특히 서울종묘와 흥농종묘는 회원들의 영농기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각 정보방의 질의/응답코너에 문의하면 이를 신속하게 답변해 주고 있다.

생활/문화 코너에서는 법률, 의료, 특허, 상표 상담과 세무정보, 소비자정보, 문화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귀농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문헌 코너에서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농업정보교육과 농림수산 국내문헌 및 농촌경제연구원의 문헌정보 등이 제공된다.

농업인광장 코너에서는 생산자 조직인 농민단체와 도드람 양돈정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고 농업인의 성공사례로서 농림어업 전문인, 새농민상 수상자, 우수작목반 사례, 환경농산물생산 작목반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농림부 정보화진흥담당관실>)

한국관개배수소식 제20호 『농업인 정보화 교실』에 이어서 연재 되었습니다.